

과학기술처

3室3局19課로 직제 개편

과학기술처의 직제가 현재 3실1국6과27 담당관제에서 3실3국19과15 담당관제로 개편되었다.

새로운 직제에 따르면 원자력국과 안전심사관을 원자력실로 통합했으며 기술정책실은 없애 기술진흥국 기술개발국 기술협력국으로 나눴다.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

과학기술처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선정과 관련, 해당 지역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나가되 부지선정이 어려울 경우 여론 수렴을 거쳐 폐광 또는 도서등에 처분장을 확보할 방침이다.

금년말까지 각계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부지확보방안연구용역을 수행하여 그 결과에 나타난 여러 후보지역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선 내년 상반기중 지방의회 지역주민에 대한 설명회 및 선진국시설 시찰등을 실시키로 했다.

또 해당지역의 자발적 참여가 없는 경우 일반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폐광 도서 임해 지역부지중 처분장을 선정키로 했다.

한국원자력연구소

미래형 중수로 핵연료

카나다와 공동개발하기로

한국원자력연구소는 카나다 원자력공사(AECL)와 함께 미래형 중수로 핵연료를 공동개발하기로 연구계약을 체결했다.

미래형 중수로 핵연료는 기존 중수로 핵연료보다 연소도를 높이고 경제성과 안전성을 월등히 향상시킨 핵연료로써 기존의 중수로 핵연료가 천연우라늄을 사용하는데 비해 1% 정도의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게 된다.

한국원자력연구소는 이번 미래형 중수로 핵연료 공동연구 계약체결에 따라 카나다가 이미 확보한 연구결과는 물론 앞으로 얻을 연구결과도 공유할 수 있게 되어 기존 중수로 핵연료의 국산화에 이어 이분야의 국내 기술수준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 올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중수형 원자로는 천연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고 냉각재와 감속재로는 중수를 사용하는데 원자로를 정지하지 않고도 핵연료의 교체가 가능해 높은 가동율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월성원전, 인근 마을회관 준공·기증

월성원자력발전소는 지난 3월 15일 관내 기관장과 마을 주민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근 나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마을회관 준공식을 가지고 동 회관을 나산리에 기증하였다.

작년 12월 착공해 이번에 준공된 나산리 마을회관은 마을주민들이 조성한 5백만원에 월성원전이 5천만원의 지역지원사업기금을 들여 대지96평에 연건평 60평의 2층 벽돌슬라브 현대식 건물로 지어졌는데 1층은 경로당, 구판장, 샤워장으로 쓰고 2층은 마을회의실과 어린이 공부방으로 사용된다.

이날 준공식에서 월성원전측은 올해도 원전주변 지역발전을 위해 10억원을 투자해 교량설치, 농업용 양수장설치, 마을안길 포장등 주민 숙원사업을 적극 지원해 살기 좋은 마을을 가꾸는데 힘쓰겠다고 밝히고 전력사업에 대한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고리원전 2호기, 국내 최장기 연속운전 기록 수립

고리원자력 2호기가 국내 원전운영사상 최장기 무정지 연속기록을 수립했다. 동 2호기는 작년 3월 24일에 핵연료를 교체한 후 가동을 시작한 이래 지난 4월 14일, 다시 핵연료를 교체하기 위해 정지할 때까지의 한주기 동안 단 한번도 고장에 의한 정지없이 387일 간을 연속 운전했다. 고리원자력 2호기의 한주기 무정지운전기록은 지난 1988년의 고리원자력 3호기에 이어 국내 두번째의 기록이다.

이와같은 한주기동안 무정지연속운전기록은 외국 원전운전의 경우에도 극히 드문 일로서 우리나라 원전의 운전 및 보수기술의 우수함과 원전의 관리상태가 극히 양호함을 나타낸 것이다. 고리원자력 2호기는 이와같은 무정지연속운전으로 작년 4월 1일부터 금년 3월 31일까지의 1년간 발전소 운영기술수준을 평가하는 설비이용률이 99.4%에 달했으며 이것은 전세계에서 운전중인 426기의 원전평균이용률을 약 30%나 상회하는 우수한 기록이다.

이러한 우수한 운영으로 고리원자력 2호기는 387일동안 총 59억KWh의 전력을 생산했으며 이것을 석유로 환산할 경우 약 1,075만 배럴에 상당하는 양이다.

浦項公大

방사광 가속기 건설 착공

첨단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폭넓게 응용되는 방사광 가속기 건설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91년 4월 1일 포항공대는 김진현 과기처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포항공대에서 방사광

가속기 기공식을 가졌다.

포항공대 인근 6만여평의 부지위에 건설될 이 가속기는 포털이 7백39억원, 정부가 6백억원등 모두 1천3백39억원을 들여 오는 94년 말 완공될 예정이다.

길이 165m 규모의 선현가속기, 둘레 280m의 저장링으로 구성되며 각종 실험장비도 함께 갖추게 된다.

방사광 가속기는 전자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시켜 방사광을 만들어내는 장치로 물질의 구조분석, 고집적회로생산등 첨단과학 및 산업기술에 널리 이용된다.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제6회 한국원산/원자력학회 연차대회

한국원자력산업회의와 원자력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6회 한국원산/원자력학회 연차대회가 지난 4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쉐라톤위커힐호텔에서 개막되었다.

“깨끗한 환경과 보다 안전한 원자력발전”을 기조테마로 한 이번 대회에는 미국과 소련, 중국, 프랑스, 카나다, 일본, 스웨덴 등 11개국에서 내한한 100여명의 외국전문가와 400여명의 국내인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6개 분야로 나뉘어 51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는데 보다 안전한 改良형 원자로의 개발이용에 관심을 보였다.

또한 연차대회 행사의 일환으로 원자력산업에 대한 기술 전시회를 가졌으며 소련과의 민간차원에서의 원자력 협력각서 조인식이 한국원산, 원자력학회 그리고 소련원자력학회간에 이루어져 연차대회의 뜻을 한층 빛냈다.

■ 비파괴검사학회 ■

초음파 탐상검사 연수과정 개최

한국비파괴검사학회는 지난 5월 6일부터 11일(6일간)까지 학회교육실에서 28명의 교육생과 비파괴검사분야 전문가들을 강사진으로 구성하여 초음파 탐상 연수과정을 개최하였다.

강사진으로는 김성태, 이용, 이의종, 하기수 모두 4명으로 비파괴검사개론, 초음파탐상검사 이론, 관련공업규격, 용접기술 및 금속재료, 기초설기(수직, 사각탐상), 주단조품의 탐상실습, 용접부의 탐상 실습 등을 강의하였으며, 아울러 시험평가를 실시하였다.

제4차 임시총회 및 춘계학술발표회 개최

한국비파괴검사학회는 지난 5월 24일 반도유스호텔에서 제4차 임시총회 및 춘계학술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임원선출과 정관개정의 건이 심의되었으며 다음과 같이 제6대 임원을 선출하였다.

회장 : 이해, 부회장 : 박궁식, 채화묵, 이사 : 권오양, 박길강, 박대영, 박은수, 반영호, 이세경, 이용, 이종찬, 이주석, 임번, 장홍근, 최승훈, 감사 : 김상철, 김홍태 이상이 제6대 임원명단이다.

아울러 임시총회 후 춘계학술발표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발표된 논문으로는 1) 불균질 계면층을 가지는 입자분산 강화 복합재료의 탄성파 다중산란에 관한 연구, 2) 초음파 Spectroscopy에 의한 물질평가를 위한 다중 반사파의 시뮬레이션, 3) Line-Focus-Beam 초음파 현미경을 이용한 금속복합재료의 피로손상 평가에 관한 연구, 4) 부선식 AE 측정장치 개발, 5) 적분법을 이용한 와전류신호의 해석적 모델등 5편이 발표되었다.

■ 大韓放射線防禦學會 ■

1991년도 춘계 학술발표회 개최

대한방사선방어학회(회장 韓萬青, 서울대학교 수)는 지난달 31일 서울대학교 호암회관에서 1991년도 춘계 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개인피폭선량에 관한 심포지움」을 주제로 한 이번 학술발표에서는 「방사선량 한도와 관계량의 변화」에 따른 李在己박사(KINS)의 발표외에 의학분야(3편), 개인선량계분야(3편)와 개인피폭 기록 관리제도(권석근 박사 : 본지 편집위원) 및 체내 피폭선량계측 현황(라성호 박사, KINS)의 연구발표가 있었다.

이번 종합심포지움 기획의 특성은 「현재 우리나라의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토론의 장(場)을 마련하는데 있었다」고 말하는 同學會총무이사 李秀容교수(漢陽大)는 「1990 ICRP 권고의 변화에 따른 20mSv로 낮춰진 연간 평균 선량한도의 권고도 국내법에서의 적시도입으로 방사선안전관리정책에 조속히 적용시켜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한양종합검사(주) ■

사무실 이전

한양종합검사(주)(대표이사 : 채화묵)는 1991년 5월 22일자로 아래와 같이 사무실을 이전하였다.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회사명	한양종합검사(주)	한양종합검사(주)
주 소	본사 및 서울출장소 서울 강남구 도곡동 553-1	본사 및 서울출장소 서울 서초구 양재동 81-4 양재빌딩 4, 5층
전 화	(02)556-7873~5	(02)578-5651~4
FAX	(02)552-2845	(02)578-7655